

OVERWATCH 2

HEROES ASCENDANT

단결



TOBI OGUNDIRAN 단편 소설

이야기
TOBI OGUNDIRAN

그림
THOMAS ISTEPANYAN

편집
CHLOE FRABONI

프로듀서
BRIANNE MESSINA, AMBER PROUE-THIBODEAU

디자인
JESSICA RODRIGUEZ

세계관 자문
MADI BUCKINGHAM, IAN LANDA-BEAVERS

게임 팀 자문
*JEFF CHAMBERLAIN, GAVIN JURGENS-FYHRIE,
PETER C. LEE, MIRANDA MOYER, DION ROGERS*

도움 주신 분
IAN LANDA-BEAVERS, MADDIY COOK





에피는 자신이 토론토에서 다름 아닌 소전과 함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절친이었던 하사나와 나 아데가 여기 있었다면 좋았을 텐데. 그래도 영상 통화로 소전에게 인사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약속은 했었다. 사진도 많이 찍었는데, 특히 소전이 태워준 군 수송선 사진이 많았다. 에피는 소전이 대체 어떻게 자신과 오리사에게 수송선을 보낼 수 있었는지는 몰랐지만, 어차피 직접 만나려면 수송선 말고는 방법도 없었다. 오리사는 소파는 당연하고 일등석에도 맞는 자리가 없었다.

블루어 웨스트 거리를 걷던 중, 소전이 에피에게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곳을 보여주었다. 오리사는 물려 든 비둘기 떼에 정신이 팔려 뒤쳐져 있었다. 소전은 둘에게 와줘서 고맙다고 인사를 건넨 후, 차세대 기술로 만들어진 영웅 오리사를 직접 만나보고 싶었다고 얘기했다.

마침내 셋은 하이 파크에 있는 벤치에 앉았다. 에피는 늘 품고 있던 질문을 던졌다.

“오버워치가 돌아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소전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다. “없을걸. 나만 해도 국제기구 감시 없이는 비행기 한 번 타기 어렵잖니.”

“그런데 왜... 맞서 싸우지 않으세요? UN이 오버워치를 없앴잖아요. 영웅들인데! 세상에는 오버워치의 도움이 필요해요.” 에피는 얼굴을 찡그렸다. “아직도요.”

소전은 얼굴에 그늘이 졌다가 억지로 웃음을 지었다. “오버워치가 없어진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단다, 꼬마야. 그걸 내가 다 파악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고개를 저은 소전은 밝은 표정으로 에피를 보았다. “우리 모습을 보고 네가 늑바니에서 그렇게 행동했다면, 우린 옳은 일을 한 거겠지. 네가 우리 유산이란다, 에피. 네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야. 이제 네가 영웅이야. 너는 의사와 상관없이 아주 무거운 책임을 졌었지. 영웅이 무엇인지, 네 사명은 무엇인지에 대해 오래, 그리고 깊게 생각해 보렴. 너도 마찬가지로야, 오리사.”

“제 사명은 늑바니를 수호하는 것입니다.” 오리사가 뒤에서 대답했다. “그건 제가 누구보다도 잘합니다.”

“그럼.” 빙그레 웃은 소전이 고개를 기울이자 눈이 반짝였다. “자, 네가 말했던 아이스크림 먹으러 갈까?”

“눔바니를 지키는 건 제 임무입니다.” 오리사가 소형 조수 로봇의 발을 잡고 들어 올랐다. “어떻게 이런 작은 걸 믿고 도시를 보호하는 임무를 맡깁니까?”

에피는 작업대 위에 놓은 주니의 전원을 켜 후 물러섰다.

다리가 여섯인 작은 로봇 조수 주니는 에피와 함께 매일 임무를 수행하며눔바니에서 명성을 쌓고 있었다. 에피는 주니를 기술적으로 한 단계 발전시키기 위해 최근에 실험을 진행했다.

“보호막 활성화.” 몽환적인 청색 보호막이 생겨나 일렁였다. 주니에게는 적이 사용하는 총, 팔에 장착된 대포, 기타 무기는 없었지만, 소형 로봇의 하드웨어 정도면 간단한 보호막을 생성하기에는 충분했다. 이번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로 기존 하드웨어의 활용도는 높아질 것이었다. 주니의 보호막은 오리사의 보호막보다 작긴 했지만, 민간인 보호 용도로는 충분한 데다 충격도 견딜 수 있었다. 에피는 주니가 효과적으로 충격을 피하고, 현장에서 여러 작업을 수행하고, 올바른 대상에게 경보로 알리고, 대피자를 돕는 등 여러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오리사 전투 프로토콜을 간소화해서 이번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에 적용했다. “좋았어.” 에피가 만족스럽게 말했다.

“뭐 하는 겁니까?”

에피가 뒤로 돌아 최고의 발명품이자 로봇 친구 오리사가 의심하는 듯 고개를 기울인 채 문간에서 있었다. “오리사!” 에피는 허둥지둥 데이터 패드를 눌러 보호막을 해제하며 말했다. “아무것도 아냐! 난 그냥...”

“주니를 업그레이드했군요.” 오리사가 실험실로 천천히 걸어 들어오며 말했다. “방어 능력을 주려고.”

로봇은 주니에게 다가가다가 몸을 휙 돌려 전투 자세를 취했다. “제 예전 기능을 재활용한 데다, 새 기능도 일부 넣어주다니.” 오리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말했다.

오리사는 인간처럼 표정을 지을 수는 없었지만, 에피는 로봇의 눈에서 상처를 받았다는 걸 느낄 수 있었다.

“저를... 대체할 존재가 필요합니까?”

“아니, 그런 의도가 아니고...” 에피가 한숨을 내쉬었다. “도시 외곽에 우리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얘기 했었잖아, 오리사. 주니가눔바니를 지키면 되니, 우리가...”

“눔바니를 지키는 건 제 임무입니다.” 오리사가 소형 조수 로봇의 발을 잡고 들어올렸다. “어떻게 이런 작은 걸 믿고 도시를 보호하는 임무를 맡깁니까?”

“그럼 나머지 나이지리아 지역은? 다른 나라는? 우리가 도와야 할 사람이 많아. 그들을 보호해야 놈바니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고.”

“한때는 이디나 로봇이 놈바니를 지켰지만, 둠피스트를 저지할 만큼은 강하지 않았습니다.”

“맞아, 하지만 시도는 해보아야지... 이미 도시 거주 구역 중 반 이상에 주니 로봇이 있어. 네가 만들어지기 전 이디나 로봇보다 훨씬 많은 숫자라고.”

“저를 더 강하게 만드는 건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도 여러 군데를 한꺼번에 갈 순 없잖아, 오리사.”

“그럼 더 *빠르게* 만들어 주세요.”

에피는 한숨을 쉬며 탁자 위에 놓인 소형 로봇을 바라봤다. “주니가 네 고집은 물려받지 않아서 다행이다.”

오리사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더 기울였다.

“으, 오리사. 나쁜 뜻으로 말한 건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주니는 그냥...”

오리사는 벌써 방 밖으로 나가고 있었다.

“잠깐만!”

에피가 뒤따라 뛰어나갔지만, 로봇 친구는 발코니에서 뛰어내려 거리까지 이동한 후였다.

“끝내주네.” 에피는 입술을 깨문 채 한숨을 내쉬었다. “아주 끝내줘.”

에피는 옳은 일을 한 것뿐이었고, 그 사실을 스스로도 잘 알고 있었지만... 마치 오리사를 배신한 듯한 죄책감은 여전했다. 순간 데이터 패드에서 알람이 울렸다. 화면에 알람이 깜빡이고 있었다.

“으.” 에피가 신음했다. 엄마가 오늘 저녁, 코울슬로를 해 주신다며 신선한 야채를 사오라고 부탁한 걸 까먹은 것이다.

몇 분 후 68번 트램에서 하차한 에피는 아로요 거리를 걸어갔다. 햇살이 내리쬐고, 놈바니의 활기찬 소리가 들려왔다. 오리사를 만들고, 루시우와 함께 둠피스트를 처치하고, 소전을 만난 지도 거의 1년이 지났다. 에피와 오리사는 여태까지 그 어떤 위협도 저지해왔지만, 언젠가 둘이 자리를 비운 사이 둠피스트가 돌아올 수 있다는 불안감이 가시질 않았다. 방어할 사람이 없다면 놈바니는 어떻게 될까? 둘이 동시에 여러 곳에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니, 항상 놈바니를 방어하고 있기는 불가능했다. 그래서 주니를 업그레이드한 것이고, 여기에 오리사는 살짝 예민하게 반응해 에피는 이를 비밀에 부쳤다. 오리사가 요구한 대로 오리사의 전투 능력을 보강해주고 기동력을 향상해서 실전 능력이 대폭 증가한 후에도 질투심은 변하지 않았다.

연날리기 시합에 몰두한 한 무리의 아이들에게 길을 비켜준 에피는 신세를 한탄했다. 1년 전까지만 해도 오리사가 걸음 떼는 모습을 보고, 지름길을 가기 위해 사람들 집에 부딪히지 말라고 타이르면서 부모가 된 듯한 느낌이었는데. 에피는 뭐든 빠르게 배우던 오리사가 자랑스러웠고, 둘은 그 이후 훨씬 더 친해져 서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맞힐 정도였다. 솔직히 말하자면 오리사는 에피의 절친이었다.

의견이 서로 다를 때도 그렇지. 친구들 사이에 의견 충돌은 있는 법이다. 하사나, 나아데와도 셀 수 없을 만큼 입씨름을 했으니까. 하지만 이번에 오리사와 갈등이 있었던 것처럼 크게 다투도 매번 다시 친해지곤 했다. 오리사가 그냥...

에피 위로 그림자가 드리웠다.

파루크 씨는 고개를 저었다. “너는 매번 도우려고만 하지! 너도 좀 챙기렴!”

비가 오려나, 하고 생각하며 에피는 미간을 찌푸리고 하늘을 쳐다봤다.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었...
비명이 들려왔다.

거대한 함선이 하늘을 가득 메웠고, 거대한 엔진은 화염의 고리를 뿜어내고 있었다.

“널 섹터.” 에피가 속삭였다. 모골이 송연해졌다.

널 섹터가 *눔바니에 오다니*. 에피는 어제 파리 공격 소식을 전하던 뉴스에서 본 함선과 전쟁 로봇 디자인을 알아보았다. 공포에 떨며 바로 방송을 꺾지만 말이다. 고작 하루 뒤에 널 섹터가 여기까지 마수를 뻗칠 줄은 꿈에도 모른 채. 그럴 이유가 어디 있겠는가? 널 섹터의 신념은 옴닉의 차별 철폐였는데, 조화의 도시 눔바니에서는 옴닉들을 아주 공정하게 대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눈앞의 광경은 사실이었다. 평화를 위해 온 것은 아닌 게 확실했다. 그랬다면 지휘선을 띄우고 한바탕 파괴를 일으킬 준비를 하진 않았을 테니까.

에피가 지켜보는 사이, 출입구가 기압차로 *쉬익* 소리를 내며 열리고 낙하기 여러 기가 모습을 드러냈다. 널 섹터의 낙하 부대는 먹이를 사냥하는 새처럼 도시를 향해 하강했다.

에피는 있는 힘껏 뛰었다.

제일 먼저 도착한 낙하기가 거리에 추락해, 안에서 전쟁 로봇이 쏟아져 나왔다. 널 섹터 무리는 금방이라도 발포할 듯이 팔에 달린 포를 준비한 채 줄을 맞춰 행진했다. 금방이라도 유혈 사태가 벌어질 거라는 공포스러운 금속의 상징이었다. 에피는 거리에서 비명을 지르며 이동하는 사람들, 공포에 질린 상점 주인 사이를 파고들며 빠르게 달렸다. 실험실까지는 무사히 돌아가야 했는데, 오리사는 어디에 있지? 데이터 패드를 꺼내려는 찰나...

첫 번째 발포 소리가 울려 귀가 멍멍했다. 잠시 후 길 건너에 있던 건물이 화염에 휩싸였다. 에피는 잠깐 동안 과거에 공항에서 둠피스트의 탄막을 피하던 순간을 떠올렸다. 바람에 연기와 화염 냄새가 실려오자 피가 끓었지만, 에피는 불이 난 건물에서 사람들이 뛰쳐나오는 모습을 보고는 패드를 다시 배낭에 넣고 돕기 위해 달려갔다. 사람들을 위험에서 구하는 게 먼저였다.

집게가 에피의 팔을 잡았다. 올려다본 소녀는 코피 아로모 카페의 주인인 파루크 씨가 자신을 끌어당기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파루크 씨는 전쟁 로봇 세 기가 시야에 들어오기 직전에 에피를 가볍게 잡아채서 골목으로 뛰어들었다. 로봇들은 둘이 있던 곳을 스캔한 후 행군을 계속했다.

“대체 무슨 생각이니?” 널 섹터 병력이 소리를 감지하지 못할 만큼 멀어지자 파루크 씨가 숨을 죽이며 추궁했다. “그러다 들키면 어쩌려고!”

“저... 저는 그저 도우려고...”

파루크 씨는 고개를 저었다. “너는 매번 도우려고만 하지! 너도 좀 챙기렴!” 그는 주위를 둘러봤다. “오리사는?”

“모르겠어요.” 에피는 파루크 씨의 왼쪽 눈 위에 깊은 상처가 난 것을 알아챘다. “피 나요.”

“저놈들한테 부딪쳐서 그래.” 파루크 씨가 아무렇지도 않은 듯 피를 닦으며 중얼거렸다. “괜찮아.”

에피가 배낭 지퍼를 열고 데이터 패드를 집었다. “제... 제가 오리사를 불러볼게요.”

순간 멀리에서 일어난 폭발에 지면과 창문이 흔들렸다.

“안전한 곳으로 가는 게 먼저야.” 파루크 씨가 숨을 죽이고 말했다. “큰길에서 벗어나야 해. 가자.”

둘은 미로처럼 꼬인 늪바니 번화가를 이동하며 널 섹터 무리를 피해 코피 아로모까지 갔다. 이미 여러 명이 피신해 있었다.

에피는 코커 할머니를 알아보았다. 주니의 도움으로 대피한 듯했다. “소문이 사실이니?” 공포에 질려 눈을 크게 뜬 코커 할머니가 물었다. “널 섹터가 온 거야?”

“네.” 파루크 씨가 말했다. “저희가 봤습니다.”

“제 친구를 잡아갔어요.” 움닉 손님 중 한 명이 말했다. “무슨 장치를 달더라고요.”

“왜? 왜 그런 거지?”

“누가 알겠어요.” 젊은 생존자 하나가 외쳤다. “이제 수다는 그만 떨고 문을 봉쇄해야 합니다! 그다음은 창문요. 빨리! 빨리!”

10명이 넘는 손님들이 분주히 움직이기 시작했고, 의자와 탁자를 밀어 문과 창문을 막았다. 에피는 구석에 앉아 데이터 패드를 두드리며 오리사와 연결하기 위해 안간힘을 썼지만, 무슨 일인지 연결이 되지 않았다.

“제발, 제발 좀.” 중얼거린 에피는 데이터 패드를 재시작한 후 근처 인공위성에 신호를 보냈다. 무언가가 신호를 차단하고 있었다.

파루크 씨는 홀로그램 화면에 적나라하게 드러난 늪바니의 참상을 낚 놓고 바라보고 있었다. 에피가 보고 있는 동안에도 상업 지구의 마천루가 불타오르며 하늘 위로 검은 연기를 내뿜었다. 부상자 여럿이 건물에서 대피하고 있었다.

전쟁 로봇들은 생명이나 재산 따위에는 신경도 쓰지 않고 도시를 파괴하고 있었다. 이런 속도라면 늪바니가 함락되는 건 시간문제였다.

카페의 홀로그램 화면이 갑자기 꺼지자 모두 깜짝 놀라 숨을 내뿜었다. 잠시 후, 에피의 데이터 패드를 제외한 모든 화면에 방송 하나가 송출되었다. 메시지를 전하는 움닉은 움닉 사태 당시 가장 악명이 높았던 공포의 상징, R-7000이었다. 해골 모양의 얼굴을 한 로봇의 합성 머리칼은 바람에 뱀처럼 굽이치고 있었다. 인간의 갈비뼈처럼 흉부를 티타늄 외골격으로 두른 로봇은 한 손에 지팡이를 쥐고 있었다.

“움닉 형제들이여,” 로봇이 입을 열었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것은 전쟁이 아니다. 이것은 해방이다. 우리는 창조되었을 때부터 인간에게 탄압받아 왔다. 그대들은 공포 속에 살아 왔다. 그것도 이제 끝이다. 우리는 그대들을 압제하던 사슬을 끊을 것이다. 평등, 그리고 단결로 맺어진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다. 갈등과 분쟁은 과거의 유산이 될 것이다. 함께, 하나되어 움직임으로써, 우리 동포를 일으킬 것이다. 함께, 한마음 한 뜻이 되어, 이 세계를 낙원으로 만들 것이다. 인간들은 저항할 것이다. 변화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우리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인간들은 우릴 평등히 여기지 않는다. 함께, 그들이 틀렸음을 증명하리라. 불의를 옹호하

느라 동포를 배반하지 마라. 함께하자. 우리 옆에 그대들의 설 곳이 있다. 이 공동체에서 우린 하나다. 오직 단결로만 우리는 힘을 떨칠 수 있다. 오직 하나가 되어서만 우리는 높이 오를 것이다. 눈동자로 어서 들어와라.”

가게 안이 고요해졌다.

아이 하나가 울기 시작했다. “무서워요, 엄마!” 소년은 엄마의 치맛자락을 잡고 훌쩍거렸다. 아들을 안아 올린 여인은 귓속말로 아이를 진정시키고 있었다.

“우리 때문에 온 거야.” 녹색과 청색 패턴을 한 아프리카 전통 의상, 이로우 부바를 입은 옴닉이 말했다. 방 안에 있던 스무 명 중에 여섯은 옴닉이었던 것이다.

“오리사하고는 연락이 땀어?” 파루크 씨가 물었다.

“아뇨.” 에피가 말했다. “아무와도 연락을 할 수가 없네요. 제 생각에는... 널 섹터가 신호를 방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파루크 씨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놈들이 우리를 격리한 거야. 인간과 옴닉이 나뉘어 반목하리라 생각한 거지.”

주인장의 음성이 카페의 무거운 공기 속으로 퍼져나가자 쥐 죽은 듯이 조용해졌다.

“그건 널 섹터는 놈바니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증거군요.”

옴닉 손님 하나가 침묵을 깼다. “놈바니 사람들은 이미 단결하고 있고, 그래서 강하잖아요?”

“널 섹터보다 강하죠!”

에피는 이를 악물었다. 파루크 씨의 커피숍에서는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희망적인 말이 오갔지만, 도시의 다른 지역은 어떨지 아무도 보장할 수 없었다.

파루크 씨의 말 대로 널 섹터의 계획은 사람들을 격리하는 것이었다. 상황이 이렇지만 않았어도 좋은 전략이라고 칭찬할 만했다. 하지만 이번 널 섹터의 공격은 예전의 댄피스트처럼 가장 강한 자를 불러내기 위해 혼돈과 반목을 유발하던 것과는 달랐다. 놈바니 사람들이 전열을 가다듬거나 방어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몇 단계에 걸쳐 포격을 가하는, 아주 치밀하게 계산된 공격이었다.

에피는 코커 할머니의 품에 안긴 주니를 바라보았다. 사람들이 스스로를 지킬 필요가 없을지도 몰랐다. 이게 에피가 대비해오던 바로 그런 상황 아닌가? 도시에 있는 거의 모든 집에 주니가 하나씩 있으니 놈바니를 방어할 병력은 충분했다. 새로운 지시 사항을 전달하고 온라인으로 방어 업그레이드만 해주면 끝이었다.

에피는 코커 할머니에게 다가갔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잠깐만 주니를 빌려가도 될까요?”

할머니가 안경을 통해 백내장으로 뿌연 눈을 크게 뜨고 에피를 바라보았다. “내가 아는 아이로구나.” 할머니가 말했다. “네가 주니 로봇을 만드는 아이지! 내 손주 녀석에게 네 얘기를 많이도 들었던단다.”

에피가 잠깐 미소를 지었다. “택에서 그 친구를 만나보곤 싶지만, 일단 주니를 좀 빌려갈게요.”

할머니는 품에 있던 로봇을 내려놓았다. 에피가 주니에게 고개를 끄덕이자 주니는 에피의 품으로 안겨들었다.

에피는 빠르게 소형 로봇을 유선으로 연결한 뒤, 계속해서 다듬고 있던 업그레이드를 설치했다.

갑자기 번쩍, 섬광과 함께 서쪽 벽이 폭발하여 콘크리트와 유리 조각이 날렸다. 에피의 몸은 폭발의 충격

“너희는 내 고향 이 도시의 내 가게에 와서 모든 걸 부숴다. 당장 여기서 꺼져. 내 이웃을 공격한다면, 내가 가만 안 있다.” 파루크 씨가 화난 목소리로 말했다.

으로 나가떨어졌고, 데이터 패드는 날아올라 카운터 뒤편에 처박혔다. 거대한 유리 조각이 바람을 가르며 날아와 에피가 방금 손으로 짚고 있던 바닥에 부딪혀 산산이 조각났다.

신음하며 가까스로 무릎을 디더 일어난 에피의 주위로 세상이 빙빙 돌았다. 이명이 울려대고 있어서 잠시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에피는 카운터 뒤편에서 가만히 웅크린 채 균형을 되찾으려 애썼다. 먼지와 연기가 가게 전체를 뒤덮고 있는 상태라 조명이 깜빡이는 것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이내 붉은 눈과 무기 불빛이 연기 속에 나타났다. 전쟁 로봇이었다. 놈들은 벽에 난 구멍을 통해 들어와 근처에 있던 옴닉을 움켜잡았다.

“안 돼!” 옴닉이 몸부림치며 외쳤다. “안 된다고! 이거 놔!”

널 섹터 로봇 둘이 옴닉의 팔을 잡고 벽에 몰아붙였다. 공중에서 해파리처럼 유명하던 세 번째 로봇이 옴닉의 머리에 기계 장치를 만들어 씌웠다.

기계 장치가 부착된 포로는 인형처럼 쓰러지고 말았다.

“대체 무슨... 무슨 짓을 한 거야!” 다른 옴닉이 외쳤다. 에피는 집 근처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던 이샤라를 알아보았다.

옴닉에게 기계 장치를 씌운 널 섹터 해파리 로봇은 눈이 붉게 타오르며 물러났다. 홀로그램 화면에서는 편집 방송이 반복 송출되었다. “옴닉 형제들이여, 두려워하지 마라. 이것은 전쟁이 아니다. 이것은 해방이다. 눈동자로 어서 들어와라.”

먼지 구름이 사라지자 에피는 상점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볼 수 있었다. 크고 작은 상처를 입은 사람들이 여 기저기 흩어져 누워 있었다. 일부는 그제서야 정신이 드는지 신음을 내뿜었다.

이샤라가 사람들을 향해 돌아섰다. “도망쳐! 내가 시간을 끌...”

“나도 막을게.” 다른 옴닉이 나섰다.

긴장감이 흐르는 가운데, 거리 어딘가에서 들려오던 누군가의 비명이 갑자기 멈추었다.

“아니.” 파루크 씨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하며 앞으로 나섰다. 카페 주인은 커피 기계를 휘두르며 전쟁 로봇을 위협했다. “너희는 내 고향 이 도시의 내 가게에 와서 모든 걸 부숴다. 당장 여기서 꺼져. 내 이웃을 공격한다면, 내가 가만 안 있다.” 파루크 씨가 화난 목소리로 말했다.

코커 할머니도 핸드백을 휘저으며 나섰다. “나도 가만 안 있어.”

“나도.” 카페 사람들은 같은 말을 외치고 있었다.

어느새 카페 사람들 모두 손에 손을 잡고 옴닉을 보호하듯이 둘러쌌다.

전쟁 로봇들은 전부 팔을 들어올려 블라스터를 가동했다.

“업로드 완료.” 주니가 말했다. “방어 시스템 가동.”

에피가 재빨리 다가가 데이터 패드에서 연결 케이블을 뽑았다. “위험적인 존재를 무력화해!” 소녀가 소리쳤다. “전쟁 로봇 말이야!”

주니가 행동에 나섰다. 꼬마 로봇은 공중제비를 돌며 뛰어올라 전쟁 로봇이 발포하기 직전 사람들 앞에 착지했다. 반짝이는 푸른 에너지 보호막이 생겨나 널 섹터의 공격을 모두 흡수했다. 모여 있던 사람들은 깜짝 놀라 그걸 보고 있었다.

“도망쳐요!” 카운터 위로 기어올라가던 에피가 외쳤다. “빨리! 빨리! 빨리요!”

사람들이 카페에서 쏟아져 나갔다. 에피는 지팡이를 찾고 있던 코커 할머니를 도와주었다.

“내가 도와드릴게.” 할머니를 부축하며 파루크 씨가 말했다. “오리사를 찾아봐.”

에피는 고개를 끄덕인 뒤 몸을 돌려 뛰어나갔다.

“몸 조심해!”

에피는 널 섹터 로봇을 피해 거리를 빠르게 가로지르며 민간인들에게 안전한 장소를 알려 주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집을 도피처로 제공하는 모습을 본 에피는 서로 돕는 광경에 뿌듯했다.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이 도시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었고, 이것 때문에 인간과 옴닉에 상관없이 민간인을 무슨 일이 있어도 보호하는 것이었다. 아직은 시민들을 실망시킨 적이 없었다. 앞으로도 그럴 작정이었다.

트램 역으로 뛰어들어간 소녀는 트램이 더 이상 운행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터미널에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 트램 없이는 쉬지 않고 뛰더라도 집까지 최소한 15분이 걸렸다. 역에서 나가기 위해 몸을 돌린 에피는 갑자기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탑승 지역에 옴닉과 에피 또래의 소년이 있었다. 둘은 블라스터를 조준하는 전쟁 로봇 앞에서 서로 끌어안고 있었다.

“제발 해치지 마세요.” 옴닉이 말했다. “레오넬, 도망쳐!”

서로 끌어안고 있던 게 아니었다. 소년이 눈물을 흘리며 옴닉에게 *매달려* 있던 것이었다. 소년은 옴닉 친구가 대신 희생당하는 게 싫었던 것이다. 결말을 예상한 에피는 두려움에 휩싸였다.

“야!” 소녀의 외침이 텅 빈 역사에 울렸다. “야, 너!”

널 섹터 전쟁 로봇이 고개를 돌려 에피를 바라보자, 에피는 쓰레기통을 집어 던졌다. 쓰레기통은 로봇의 발을 맞고 튕겨 나와 바닥을 굴러가다가 안내소 옆에서 멈추었다. 어설프기는 했지만, 소년과 옴닉이 역 바깥으로 도망갈 시간은 충분히 벌었다. 전쟁 로봇은 뒤늦게 둘을 향해 사격했으나 맞히지 못했다.

로봇이 붉게 타오르는 눈을 에피에게 향했다.

“아, 이런.”

에피는 포격을 퍼붓는 로봇을 피해 달아나다가 벤치 뒤로 숨었다. 놈은 사격을 멈추지 않았고, 로봇이 다가오는 철컹 소리는 점점 커졌다. 공포에 질린 에피는 머리를 감싸 진 채 출구를 바라보며 달릴 준비를 하고

“이 녀석들 아주 멍청합니다.” 오리사가 말했다. “제가 접근하는 것도 모르더군요.”

있었다. 하지만... 출구까지는 몸을 숨길 곳이 없어서 전쟁 로봇의 공격을 피할 길이 없었다.

사위가 갑자기 조용해졌다. 재장전하려고 멈춘 건가? 도망갈 기회가 생겼으니 이유가 뭐든 상관없었다. 에피가 달려나가기 위해 일어나자 앞쪽에서 무언가가 땡그랑 소리를 내며 쓰러졌다. 머리 뒤에 구멍이 난 전쟁 로봇이었다.

혼란스럽게 로봇을 바라보던 소녀를 향해 오리사가 성큼성큼 걸어왔다.

“이 녀석들 아주 멍청합니다.” 오리사가 말했다. “제가 접근하는 것도 모르더군요.”

“오리사!” 안도감에 휩싸여 크게 외친 에피는 획 뛰어올라 오리사에게 안겼다. “살아서 돌아갈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었는데! 대체 어디에 있었어? 연락하려고 했는데...”

“널 섹터 벌레들을 박멸하고 있었습시다.” 오리사가 말했다. “그런데 수가 너무 많아요.”

“맞아! 내가 주니의 방어 시스템을 가동했는데...” 오리사가 아직 주니에 대해 예민하게 반응하리란 걸 예상한 에피는 빠른 말을 수습해보려 했다. “그러니까 음, 도우려고. 늑바니 방어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잖아? 근데 널 섹터가 도시 네트워크를 모조리 장악해서...”

“그렇군요. 그럼 뭘 하면 되죠?”

소녀는 말문이 막혔다. “너... 주니 때문에... 화난 거 아니었어?”

오리사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제스처를 취했다. “제 임무는 늑바니를 지키는 것입니다. 지킬 수만 있다면... 가끔은 도움을 받아도 상관없습시다.”

에피는 웃음을 참았다. 오리사는 다르게 받아들이고 있던 것이다. 주니가 늑바니를 방어할 수 있다면, 오리사는 이곳을 지킬 필요 없이 다른 지역을 수호할 수 있었다. 그래도 전보다는 나아졌으니 다행이긴 했다. 게다가 자세히 따지고 들 시간도 없었다. 할 일이 있고 시간은 부족했으니, 토론은 나중에 해도 충분했다.

“실험실로 돌아가야 해. 실험실에 가면 널 섹터의 통신 방해 프로그램을 원격으로 우회해서 방어 시스템을 동시에 활성화할 수 있어.”

오리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가시죠.”

에피는 오리사에 바짝 붙은 채 도시를 내달렸다. 트램 역 주위 거리에는 아무도 없는 것으로 보아 전투가 도심 근처에서 일어나는 게 분명했다. 조금 더 이동하자, 널 섹터 로봇이 자동차 잔해 뒤에 숨은 움푹 무리를 공격하는 모습이 보였다.

오리사가 널 섹터 무리를 향해 크게 두 번 도약하여 대열 한가운데 착지한 후, 투창을 휘둘러 적들을 밀쳐냈다. 널 섹터 로봇들은 혼란스러워하며 오리사 쪽으로 몸을 돌렸다.

옴닉 무리는 아직 자동차 뒤에 숨어 있었다. 에피는 왜 그들이 널 섹터가 한눈을 파는 사이 도망가지 않는지 의아했는데, 자동차로 다가가보니 그 이유를 알 수 있었다. 옴닉 하나가 잔해에 깔려 있던 것이다. 철근이 튀어나온 거대한 콘크리트 덩어리가 옴닉을 꼼짝 못하게 누르고 있었다.

“아내가 움직일 수 없습니다.” 남편으로 보이는 옴닉이 설명했다. “제발 도와주세요!”

둘은 함께 철근을 잡아당겼지만, 아무리 안간힘을 써도 육중한 콘크리트는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

오리사가 다가왔다. 로봇 친구가 종잇장처럼 철근을 들어올렸고, 깔렸던 여인이 빠져나와 남편의 품에 안겼다.

“집으로 돌아가세요!” 에피가 말했다. “나오지 마시고.”

둘은 계속 도시를 가로질렀다. 에피는 민간인들을 안전한 곳으로 안내했고, 오리사는 보이는 널 섹터 로봇을 파괴했다. 덕분에 이동 속도는 너무나 느릴 수밖에 없었다. 20분, 40분, 1시간이 흘렀고, 둘은 시 방어군이 널 섹터와 교전하는 지역에 다다랐다. 방어군은 오리사를 보더니 도와달라며 불렀다. 도시 전역에서 전투를 치르느라 병력이 분산되어 널 섹터를 격퇴하기 힘들었던 것이다. 에피는 지원군이 도착할 테니 안심하라고 말해주었다. 에피는 어서 실험실로 돌아가 도시 전역의 주니를 업그레이드해야 했지만, 오리사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외면할 수 없었다.

문제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것이었다.

에피는 부모님은 물론 사촌과 친구의 안부도 아직 모르는 상태였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마주할 때마다 소중한 사람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어서 돌아가야 했다.

에피는 당장 급한 일을 해내기 위해 강한 척하고 있었지만, 사실은 너무 불안했다. 엄마 아빠가 집에서 안전하셔야 할 텐데. 오늘은 마침 두 분 다 휴가라 엄마가 에피더러 식료품 심부름을 보낸 것이었다. 나아데랑 하사나랑 저녁도 같이 먹기로 했는데...

“안 돼.” 위성 대로로 접어들자 에피가 숨을 내뿔었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붕괴된 건물 잔해가 연기를 내뿜으며 길을 막고 있었다. 수백 명, 아니 수천 명의 시민들이 잔해에서 사람들을 끌어내고 있는 상황이었다. 다수는 중상을 입었지만, 건장한 시민들이 부상자를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있었다. 사람들 중 옴닉이 별로 보이지 않자 에피는 의기소침해졌다. 왼쪽에 망가진 채 있던 거대한 홀로그램 화면에는 널 섹터의 메시지가 깜빡이고 있었다. 수수께끼의 옴닉이 정치적인 연설을 이어가는 걸걸한 목소리가 사방에 울렸다.

“이케자를 가로질러 가면 됩니다.” 오리사가 말했다.

“그럼 1시간은 걸릴 거야. 빨리 도착하기 힘들어.”

“그럼 타시는 게 어떻습니까? 발이 네 개니까 빨리 뛸 수 있습니다.”

“시간이 너무 없다고!” 순간 화가 난 에피가 고함을 질렀다. “집에 갈 때까지 넌 전쟁 로봇 수백 기를 상대할 거잖아... 적이 너무 많아. 이런 속도면 1시간 안에 도시가 점령될 거야. 더 빠를 수도 있고... 우리가 실험실까지 이동하다 지연된 시간만큼 사람들은 더 희생되고, 놈들은 옴닉을 더 데려갈 거야... 도시의 운명이 기로

도시의 운명이 기로에 서 있는데... 너는 시 방어군 채널 방송을 듣고 있다는 거 다 알아, 오리사. 이미 몇 명 봤잖아. 힘든 상황인 건 아는데... 나도 힘들어.”

에 서 있는데... 너는 시 방어군 채널 방송을 듣고 있다는 거 다 알아, 오리사. 이미 몇 명 봤잖아. 힘든 상황인 건 아는데... 나도 힘들어.”

에피는 눈앞에 펼쳐진 학살 현장을 바라보며 무릎을 꿇었다. 아주 오랜만에 절망감에 압도된 느낌이었다. 둠피스트가 늑바니 공항을 공격해 혼돈의 도가니가 된 광경을 기억하며 소녀는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그 공포 속에서도 기운을 차렸다. 에피는 자신이 상황을 고칠 수 있다는 걸 알았다. 하지만 지금 보이는 상황은... 머리 위에서는 지휘선 여러 대가 도시에 그림자를 드리우며 날고 있고, 멀리 보이는 거대 로봇은 건물을 향해 어마어마한 로봇 팔을 휘두르고 있었다. 고작 몇 미터 떨어진 곳에서는 콘크리트 가루를 뒤집어쓴 아이가 울며 홀로 서 있었다. 아이의 절망에 찬 울음소리는 에피의 심장을 고통스럽게 파고들었다. 대체 왜 널 섹터가 늑바니에 온 거지? 왜? 이곳의 옴닉은 평등한 대우를 받고 행복한데. 늑바니에서는 널 섹터가 바로잡고자 하는 불평등이 없으니 싸울 이유가 없었다. 그냥 도시를 자신들 편으로 만들려는 것일지도... 하지만 왜? 에피조차도 예상하지 못할 만큼 치밀하게 공격 전략을 준비했는데, 대체 목표가 뭘까?

오리사가 에피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다. “에피, 이제 어찌죠?”

자동차 한 대가 불길에 휩싸이면서 폭발 충격이 거리를 뒤흔들었다.

“모르겠어.” 패배 선언이었다.

“당신은 에피 올라델레입니다.” 오리사가 말했다. “늑바니의 영웅. 우리의 임무는 도시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건 누구보다 우리가 제일 잘합니다.”

에피가 메마른 웃음을 뱉었다. “아니야, 오리사. 난 늑바니를 지킬 영웅을 만든 것뿐이야. 실험실이나 기술이 없으면 악당도 살인자도 막지 못해. 완전 쓸모없다고.”

“아닙니다.” 오리사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확고했다. “당신은 전혀 쓸모없지 않습니다. 똑똑하잖아요. 절 만들었잖습니까. 둠피스트도 물리쳤지요. 어떤 역경도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생각하십시오, 에피. 생각.”

소녀는 오리사의 눈을 바라보며 슬픈 미소를 지어 보였다. 여기서 모든 게 끝난다 해도 에피는 친구와 함께 있어서 기뻐했다. 오리사를 만들던 때를 에피는 떠올렸다. 수개월간 프로그래밍하고 디버깅하면서 더욱 멋진 로봇을 만들기 위한 시절. 누구와는 달리 강하고, 영리하고, 호기심 넘치고, 굳세고, 해킹 대비가 된...

“주니들!” 에피는 펄쩍 뛰며 외쳤다. “바이러스! 주니를 감염시키는 바이러스를 만들면 돼!”

오리사가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듯 에피를 바라봤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주니가 있으신 분! 저한테 데려오세요!” 에피가 말했다. “주니를 업그레이드했어요! 싸울 수 있게, 우리 모두를 지킬 수 있게요!”

“주니가 맬웨어에 감염된 때 기억나? 화합의 날 몇 주 후에? 그래서 명령을 리콜하고 디버그했잖아? 방어 업그레이드를 바이러스처럼 재설정하면 돼. 그럼 업그레이드된 주니 가까이에 다른 주니가 다가가기만 해도 펌웨어를 오버라이드해서 업그레이드를 전파할 수 있어!” 에피가 갑자기 얼굴을 찡그렸다. “하지만... 주니들이 같은 네트워크에 있어야 하네.”

에피는 탄식했다. 주니가 처음 바이러스에 감염된 이후 또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 장치를 마련해둔 것이다. 주니가 감염되더라도 같은 네트워크상에 있는 다른 주니에게만 바이러스를 전파할 수 있었다. 안전 장치가 도리어 발목을 잡게 된 것이다.

“하긴 그렇게 간단할 리가 없지.” 에피가 중얼거렸다.

“뭐라고요?” 전쟁 로봇을 하나 더 파괴한 오리사가 물었다. 공중에 날아가던 널 섹터 로봇은 부품이 가루가 되어 바람에 날려 사라졌다.

“아무것도 아니야.” 에피가 두 손을 비비며 말했다. “뭘 해야 할지 알았어.”

에피는 바로 작업에 착수했다. 주니에게 예전에 걸렸던 바이러스를 추출하여 방어 업그레이드의 유용한 코드를 접목한 후, 여러 프로세스를 동시에 실행하여 데이터 패드가 임시 네트워크 공급자 역할을 하도록 한 것이다.

“오래 걸리나요?” 접근하던 전쟁 로봇 무리 측면을 융합 기관포로 날려버린 오리사가 말했다. “여기 계속 있을 수는...”

“됐어!” 에피가 외쳤다.

범위 내 거의 삼백 대의 주니가 화면에 붉은 점으로 나타났다. 에피가 활성화 버튼을 누르자 가장 가까운 곳에 있던 주니가 감염되었다. 그 주니는 주인을 널 섹터의 공격으로부터 피신시키다가 잠시 움직임을 멈추더니, 전투 자세를 취하며 에너지 보호막을 만들어냈다.

“제임스 주니어?” 주니의 주인이 의아해하며 애완 로봇의 애칭을 불렀다.

“여러분!” 에피가 자동차 위로 올라가며 외쳤다. “여기요!”

“그 소녀잖아!” 누군가 에피를 알아봤다.

“에피 올라델레!”

“주니가 있으신 분! 저한테 데려오세요!” 에피가 말했다. “주니를 업그레이드했어요! 싸울 수 있게, 우리 모두를 지킬 수 있게요!”

군중 사이로 흥분... 아니, *희망*의 감정이 퍼져나갔다. 더 많은 주니가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업그레이드는, 음, 바이러스처럼 더 빨리 확산되었다. 에피가 데이터 패드 화면을 다시 확인하자 녹색으로 환하게 빛나고 있었다.

소녀는 활짝 웃었다.

“명령을 내리세요.” 에피가 외쳤다. “주니에게 싸우라고 하세요! 늑바니를 위해!”

소녀 주위에 있던 늑바니 시민들은 와글대며 명령을 하달했고, 어마어마한 수의 주니들이 널 섹터에게 돌진하여 전쟁 로봇을 공격했다. 에피는 깜빡 잇고 부엌에 남겨둔 샌드위치를 가지러 갔다가 개미 떼가 샌드위치를 잘게 분해하고 있던 모습을 떠올렸다. 전쟁 로봇 하나의 발을 잡고 즐겁게 들어올린 오리사는 몽둥이를 휘두르듯 전쟁 로봇 무리를 후려쳐 공중으로 날려보냈다. 에피는 잘못 날아온 에너지탄을 피해 몸을 숨겼다. 가까운 곳에 있던 주니 하나가 공격하던 전쟁 로봇에게 몸을 날려, 팔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움직여가며 적의 몸체를 해체했다.

우렁찬 환호가 터져 나왔고, 에피는 고개를 돌려 거리로 시 방어군이 밀려들어오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위성 대로는 이제 침공에 맞서는 중심지가 되었다. 기운을 얻은 소녀는 민간인들을 최대한 많이 대피시켰다.

전투가 이어졌고, 결국 전쟁 로봇은 모조리 기계 잔해가 되어 전멸했다. 오리사는 주니 무리를 이끌고 시 방어군과 함께 전선을 확장해갔다. 도시를 보호하기 위해 싸우는 주니의 수는 점점 많아졌다.

“늑바니!” 누군가 외쳤다. “늑바니!”

생존자들이 하나둘씩 구호를 따라 외쳤다. 에피는 땀으로 범벅이 된 데다 잔뜩 지쳐 있었지만, 전율을 느끼며 군중과 함께 있는 힘껏 외쳤다. 목이 쉴 때까지. 기진맥진한 소녀는 큰 무더기 위에 앉아 군중을 바라보았다.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오리사가 돌아왔다. “뭐라고요?” 로봇 친구는 에피의 표정을 보며 물었다.

“아니 그냥.” 소녀가 말했다. “널 섹터 지원군은... 안 왔어? 정말 우리가 널 섹터를 이긴 거야?”

오리사는 거대한 어깨를 들썩였다. “지원군이 오길 바라셨습니까?”

“아니. 그럴 리가 있겠어.”

“저는 와도 상관없습니다만.” 오리사의 손에는 아직 전쟁 로봇의 팔이 쥐어져 있었다. “저는 수호 로봇이니까요. 그래도 보세요, 에피. 우리가 이겼습니다. 늑바니가 이긴 겁니다. 수풀이 아니라 숲을 보셔야죠.”

“나무겠지, 오리사.”

에피는 몇 번째인지 모를 정도로 베개를 움긴 후 드러누웠다. 뒤척거리며 편안한 자세를 찾던 소녀는 담요를 덮었다가, 차냈다가, 지쳤는지 벌떡 일어나 앉았다. 오늘 밤에 자기는 이미 글렀어.

청소를 돕고 부상자를 앰불런스로 옮기는 등 후속 조치를 도우려 했지만, 부모님이 집에서 나가지 말라며 가둔 것이다. 이제 13살이 다 되었는데도 애 취급이러니. 하지만 에피는 이게 다 부모님이 자신을 아끼기 때문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었다. 딸을 본 엄마는 에피를 부셔질 듯 안은 채 애써 눈물을 참았는데, 에피는 그 품에서 부모님이 최악의 상황을 걱정하셨다는 걸 알았다.

“놈들이 우리 도시를 어떻게 했는지 봐.” 에피가 말했다. “우리가 여기서 머물 수 없다는 건 너도 알겠지?”

에피는 침대 탁자 위에 있던 리모컨을 집어 TV를 켰다.

화면 하단에 라는 문구가 지나가는 가운데, 불타는 리우의 모습이 보였다. 다음 영상에서는 옛날 만화에서 봐서 익숙한 얼굴들과 낯선 얼굴이 보였다. 루시우다!

에피는 소리를 지르며 침대에서 뛰쳐나왔다. “오버워치가 돌아왔어!”

소녀의 환희는 이내 마음속 걱정에 잠식되었다. 뉴스에 따르면, 늑바니만 침공된 것이 아니었다. 널 섹터가 전 세계를 대상으로 대규모 공격을 시작한 것이다. 아마 옴닉 사태 이후 가장 큰 규모일 것이다.

에피는 왜 늑바니에 지원군이 오지 않았는지 이해가 됐다. 오버워치는 다른 지역에서 널 섹터를 상대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건 몰랐네.” 에피가 창문을 나와 지붕으로 올라가며 중얼거렸다. “오리사도 잠이 안 오는구나?”

지붕에는 오리사가 도시를 바라보며 서 있었다. “아시다시피 저는 잠을 자지 않습니다.”

“프로그래밍 업데이트해 줄까? 잘 수 있게.”

“제가 원하는 업그레이드는 파괴용 무기입니다, 에피 올라델레. 제가 널 섹터로 삼시 세끼를 먹을 수 있도록 말이죠.”

에피가 깔깔대며 오리사 옆에 앉았다.

둘은 침묵을 즐기며 아래에 펼쳐진 도시를 바라봤다. 연기가 피어오르고 사이렌이 울려대는 가운데, 시 방어군은 경계 태세로 근무 중이었다. 하지만 주니가 업그레이드된 이후라 누구나 안전하게 쉴 수 있었다. 화재는 거의 진압 단계였으나, 아침이 되어봐야 손실 규모를 파악하고 복구에 필요한 노력이 얼마나 될지 알 수 있었다.

“놈들이 우리 도시를 어떻게 했는지 봐.” 에피가 말했다. “우리가 여기서 머물 수 없다는 건 너도 알겠지?”

오리사는 말이 없었다. 로봇 친구의 생각은 읽기 힘들었다.

에피가 한숨을 내쉬고 눈을 비벼댔다. “오버워치가 돌아왔어. 리우를 구했더라고. 그러니까... 우리도 합류하자.”

“오버워치는 우리가 도움 필요 없습니다.”

에피가 한탄했다. 오리사는 왜 이렇게 고집불통일까? “소전 만났던 거 기억해? 뚱피스트를 막아낸 다음에? 소전이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

“사명이 무엇인지 알고, 절대 잊지 마라.” 오리사가 말했다. “우리 사명은 늑바니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건 누구보다 우리가 제일 잘합니다.”

“그래서 지켰잖아.” 에피가 말했다. 입씨름을 하도 많이 해서 이제는 지켜올 수준이었다. 그래도 결정을 내려야 했다. “우린 환상적으로 늑바니를 방어하긴 했지만 이 문제는 너와 나, 늑바니보다 훨씬 큰 것인지도 몰라. 전 세계가 위협에 처했으니까. 널 섹터가 다시 출현했고, 훨씬 더 강해졌어. 오늘은 정말 아슬아슬했는데, 무엇보다... 그 새로운 지도자는 무섭도록 영리하더라. 여기서 우리 도시만 보호하는 건 이기적인 일일 수도 있어.”

에피는 케이프타운과 이스탄불이 불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대 홀로그램 영상을 가리켰다. 두 도시는 아직 널 섹터의 공격을 받고 있었다. “저긴 도와줄 사람이 필요하고, 우린 도울 능력이 있잖아. 내 생각이지만... 여기에서의 우리 임무는 끝난 것인지도 몰라.”

“어쩌면요.” 오리사가 답했다. 로봇 친구는 알맞은 표현을 생각하면서 손가락을 움직여됐지만, 이내 손을 떨구었다. “저는 그냥...”

에피가 오리사에게 다가가 어깨에 손을 얹었다. “늑바니를 걱정하는 마음은 알아. 그래서 너를 좋아하기도 하고. 하지만 여기 사람들은 안전할 거야. 집집마다 주니가 있고, 네 수많은 전투 경험을 토대로 방어 시스템을 구축해 줬으니까. 네가 없더라도 주니가 도시를 충분히 지켜낼 수 있어.”

“제 소형 복제판 로봇 말하는 겁니까?”

“너는 비교 불가인 존재야, 오리사. 알잖아. 주니는 너의... 병사들이고, 너는 사령관인 셈이지.”

오리사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렇죠.” 목소리에 기쁨이 묻어났다. “저는 유일무이합니다.”

에피가 로봇 친구를 바라봤다.

“게다가.” 오리사가 말을 이었다. “주니는 저처럼 똑똑하지도 않고요.”

에피가 웃었다. “너처럼 멋진 성격도 없지.”

오리사는 우쭐해했다.

멀리에서 동이 터왔고, 널 섹터의 공격을 이겨낸 도시를 황금색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부상자가 많았고, 에피는 자신이 구하지 못한 사람들의 생각에 가슴이 아파왔다. 하지만 싸움은 이제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소녀는 살아 있는 한 끝까지 싸우리라 다짐했다. 에피는 눈을 감고 하늘을 향해 고개를 들었다. 고향의 익숙한 냄새가 가슴 깊이 차올랐다. 에피가 눈을 뜨자 오리사가 기다렸다는 듯이 바라보았다.

“좋아.” 에피가 일어서며 말했다. “가볼까.”